

테마칼럼

문학의 세계

광주3기

디자인 세상

교육의 마당

도시디자인 다시 보기



이난경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삶이 디자인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광주의 관문인 무진로와 빛고을로를 이용해 출퇴근 하다 보면 녹지대에 심어진 연보라빛 꽃잔디가 시선을 빼앗는다. 온통 회색 일색인 도시에서 화사한 자연의 색은 엔돌핀이 따로 없다.

지난해 11월 경관법이 제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시, 도, 군, 구들이 너도나도 도시디자인 정책을 내놓고 디자인도시를 선언하고 있다. 이쯤 되면 디자인이 공무원사회의 최신 유행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저마다 자기 지역을 디자인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공약들이 디자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늘 상 있어 왔던 공약에 디자인이라는 수식어만 가져다 붙여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자 지자체들이 선진 디자인 도시 견학을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눈총을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답게 디자인의 상업적 가치를 잘 활용했다. 디자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건축·도시 디자인을 정착'시키겠다고 한다. 이에 질세라 서울시는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디자인을 통해 도시공간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문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디자인 위원회 설치', '디자인 기본법'과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 문화국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다간 조만간에 전국 도시들이 저마다 '창조문화디자인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설 것이 뻔하다. 청계천 개발 이후 전국의 도심 하천이 제2의 청계천이 되고 'Hi, Seoul' 이후 전국 도시들이 말도 안되는 영문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디자인이 각종 개발사업에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활동을 하며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시설과 기반이 집적된 곳이다. 도시의 시스템과 인프라는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장소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삶의 희망과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 무엇을 만들었나보다 왜 만들었나와 어떻게 만들었나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같은 보도블록으로 인도를 포장해도 서울 강남의 인도가 더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름다움

을 보는 시각의 차이와 시공의 철저함의 차이이다. 도시를 디자인 한다는 명목으로 도시의 시각 공해물들을 양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수만 신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명품이라는 식의 억지는 곤란하다. 실제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다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것들이 수왕지구엔 부지기수다. 디자인을 장식적으로 생각하고 돈만 들이면 된다는 식의 디자인으로 진정한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나서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사항이어야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철학이 담기느냐이다. 모양 내기가 아닌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디자인이다.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삶이 디자인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도시를 고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한 진정한 디자인 철학을 느낄 것이다.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고

임향순



부정과 비리에는 강철검보다도 예리한 직필(直筆)로 소외와 비정(非情)에는 질화로보다도 뜨거운 온필(溫筆)로 사회정의와 향토인정을 밝히는 광주일보의 창사 56주년을 출향 900여만 호남향우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하 드리는 바입니다.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시대와 도시산업화의 민주쟁취 시대를 넘어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인 오늘에 이르렀다 오직 향토사회를 위하여 쏟은 광주일보의 부단한 애정과 노력은 우리 호남인의 가슴 속에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을 무거운 영광의 멍에로 삼고 앞으로 향토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식정보화가 삶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방정부 등과 합심하여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향 향우들끼리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향 향우들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고 정도 많지만 결속력과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인의 평입니다. 향우회를 근간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호남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항상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고향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뒷동산, 가을가을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죽마고우,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 고향 음식도 먹고 아울러 고향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방문행사를 최소

공정과 사랑과 상생의 풍토를 염원하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서울과 지방 간,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가 증진되고 필요성도 배가 되었습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정서적 통일감을 넘어서 '경향불이(京鄕不二)', '도농불이(都農不二)'라는 말이 우리들의 가슴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코드는 '환경과 문화'라고 석학들이 예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농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문화는 창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고향 전남은 '환경의 보루'라 할 만큼 생생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광주는 '문화수도'라 할만큼 창의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창의를 발휘하여 향토발전을 이룩하는 길은 지방정부와 출향 향우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외길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출향 향우는 고향의 발전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한 1년에 3회 이상 실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향 농수산물을 향시 애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었지만 출향 향우인 우리들이 고향 농수산물을 자발적으로 애용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경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 여겨지기에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타고 사람들이 평하기를 타 지역민에 비해서 개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의협심이 강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증구난방으로 질서가 희박하고 같은 호남인끼리도 잘 되는 것을 보면 투기가 강하다고도 혹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를 꾸는 심정으로 주객을 새겨 들고 전정(前程)의 경계로 삼아야 하지 않나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공정과 사랑과 상생의 풍토를 염원하며 다시 한번 '광주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재·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장>

無等鼓

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60여년 만에 만났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사오완창(蕭萬長) 대만 부총통 당선인은 지난 12일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회동했다. 1949년 국공(國共) 내전이 끝난 지 59년 만이다.

이번 회동은 국공 내전 종결과 함께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넘어간 이후 최고위층의 만남으로 기록됐다. 양측은 경제 협력은 물론 60여년에 걸친 대립과 갈등을 털고 새로운 해방과 개방에 합의했다.

대만 대표단에 대한 중국의 대우는 각별했다. 사오완창 당선인을 외국 지도자와 동등하게 예우했고 포럼 개막식 때는 외국 수뇌들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배려하기도 했다.

중국과 대만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대만 총통선거의 영향이 크다.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후보는 대륙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개방을 내세웠다. 반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속한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독립을 주장

했다. 마잉주 후보가 승리한 뒤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대만간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여년 전부터 경제를 중심으로 교류와 대화를 이어왔다. 춘제(春節)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전 세계를 뒤흔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대만을 일개 성(省)으로 취급했던 중국의 입장에서 오는 8월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에 '하나의 중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만은 침체된 경제를 대륙과의 교류 확대로 풀려갈 수 있는 '실리'를 챙기게 됐다. 민족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도 '실용주의'가 우선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냉랭하다. 중국과 대만의 화해 기류와는 상반된다. 우리의 강력한 경제 경쟁 상대인 중국과 대만이 민족문제에서도 앞서가고 있어 부러울 뿐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양안의 화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상규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면서 농부들은 새로운 한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 재배할 작물을 선택했지만 혹시 작황이 좋지 않거나 재배량이 많아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축축이 불비가 내리던 날 차량을 이용해 광주 외곽으로 잠시 바람을 쐬고 오는 길에도 농부들이 비옷을 입고 밭에서 무언가 심는 모습을 보았다. 밭이랑을 비닐로 덮고 군데군데 작은 구멍을 뚫어 무엇인가를 심고 있었다. 밭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사람은 멀리서

퇴행성 요추부 전만증(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병)은 특히 동양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분들에게 가능하다면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일을 줄이고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지만 농촌의 사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내리거나 허리를 많이 구부려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허리나 목의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해서 지쳐 있는 근육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이 운동이지 뭐", "밭도의 운동을 할 필요요

"일이 운동이지 뭐"

보아도 거의 다 50대가 넘어 보였다.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에서 농사와 가축사육 등을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더 연세가 많은 노년층 인구가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밭을 갈고 논밭에서 거둔 수확을 내다 팔아 지친 농사도 지었다. 이 분들이 직접 나이가 들어가면 힘든 노동으로 인해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 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기 마련이다.

도시지역 노인들과 비교하면 농부들이 이런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다. 농사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들녘을 지나면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가로운 목가적 농촌 풍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척추 질환을 전공하고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을 진료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광주 새우리병원 원장>

기고

박환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4·19민주혁명 역시 그 직접적인 원인이 3·15부정선거였다면 경향신문 폐간, 부산 정치파동, 사사오입 개헌 등이 간접적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올해로 48주년을 맞게 된다. 참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최근 불거져 나온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지식인들의 모임인 '교과서 포럼'이 출간한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4·19민주혁명 비하 수록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8년 전 4월19일 그 날, 광주의 10여

때늦은 감은 있지만 광주시 계림동 4·19민주혁명 광주기념관 건립과 함께 역사전시관 개관을 4·19민주혁명기념관 관장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 매일 시민과 학생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4·19민주혁명의 정신과 참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념관의 중축을 통해 강당과 소회의실, 자료실 등이 확보되는 오는 8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에 걸맞게 명실공히 4·19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또 하나 광주시의 의지에 의해 명명

호남 4·19민주혁명에 부쳐

개 고교생 2천여 명의 생사를 건 저항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불의에 항거하며 그들이 뿌린 피의 대가를 생각한다면 시행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돌아보면 4·19는 분명 자유당정권 12년을 종식시키는 역사의 전환점이었던 때. 때문에 비합리적 방법으로 헌정체제의 변혁과 정권 교체를 결과해 초기에는 혁명으로 규정하여 4월 혁명, 4·19 학생혁명 또는 4·19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부테타 세력은 이를 의거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5공·6공 세력들은 아예 4·19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던 수난의 역사를 거듭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이어 참여정부에서 다시 민주혁명으로 환원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광주의 4·19는 어떻게 변모한 것일까.

된 서방4거리에서 중앙초교를 잇는 4·19민주로는 구 전남도청 앞과 함께 민주정신의 거리를 거듭날 것이다.

이제 호남 4·19민주혁명은 거듭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5천년 사직에서 반봉건 민중 봉기로 약칭되는 동학농민혁명, 일제 의병항쟁, 광주학생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한 가운데는 4·19가 자리잡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민중조직 운동의 현상들이 호남 땅에 수없이 연이어 내려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용기와 피의 대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4·19세대가 뿌리고 간 정의로운 피와 용기를 수습하고 정립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바로 그 주체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광주시 4·19민주혁명기념관 관장>

국제결혼 피해 급증...객관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해야

주위에서 국제결혼을 한 사람을 쉽게 본다. 통계를 보니 작년에만 무려 5만쌍이 국제결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늘 제기되는 문제는 결혼 전 상호 검증 절차가 없어 환상만을 가지고 결혼하다보니 양쪽 모두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시집 온 신부들은 남편의 경제력 등을 모른 채 들어오고 남편들은 한국 정서를 전혀 모르는 신부에게 실망하며 또 도망가지는 않을까 걱정에 꺾박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정보가 없이 결혼했기 때문이

다. 한국 남성이 동남아국가를 방문해 그곳 여성을 만나고 결혼하기까지는 5~6일이면 족하다고 한다. 말도 통하지 않다가보니 외모만 보고 고르는 게 전부 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심각한 전염병이 있는 동남아 신부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반대로 알콜·도박 중독에 빠진 한국 신랑감들이 회사원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많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뜻을 모아 예산을 투자해 검증시스템을 만든다면 국제결혼 후 나타나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금숙·광주시 서구 농성2동

야생동물 스트레스, 등산 때 소리치지 말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갈수록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다.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산 정상에 오르다 보면 어느새 한 주일의 피로가 풀리고 상쾌한 마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호"하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심코 지르는 이러한 고함은 각종 야생동물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야생동물들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겁이 많은데 고함까지 질러대니 놀라 도망다니기 일쑤이고 그러다 경사진

산비탈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 안정된 번식을 방해한다는 데 있다. 실제 희귀종인 설악산 산양은 등산객들의 고향에 놀라 흔적을 감춘지 오래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산은 동물들에게는 생존의 터전이다. 동물들이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유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정 계 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D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주요목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